

# 우리 수출 구조, 과연 고도화되었는가

李 相 蓉\*

## 수출 품목 구조 변화의 추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의 수출은 중화학 공업 중심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은 철강·금속, 가전 제품, 선박 등의 수출 호조에 따라 1983년부터 처음으로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86~88년의 3저 호황 시대에는 중화학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경공업 제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양자간의 수출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89년을 기점으로 후발 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경기 부진으로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한 반면, 중화학 제품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업종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

	80	85	86~88	89	90	91	92	93
경공업	49.9	43.1	43.0	42.0	41.1	37.8	33.0	30.7
중화학 공업	40.9	48.0	50.2	52.2	53.6	56.1	62.8	65.6
기타	9.2	8.9	6.8	5.8	5.3	6.1	4.2	3.7

자료: 무역협회

주: 93년은 10월까지의 실적임.

이리하여 93년 10월까지의 수출 비중은 경공업 30.7%, 중화학 공업 65.6%를 기록하여, 드디어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이 경공업 제품의 수출보다 2 배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다.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이 경공업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1)</sup>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강력히 추진된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책이 과거의 수입 대체형, 내수 충족형 산업의 한계를 벗어나 이제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경제가 선진 공업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화학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공업 제품은 선진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수출되면서 집중적으로 수입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중화학 공업 제품은 국내 공급 능력 확대와 함께 수출 촉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이러한

1) 제조업 총 매출액에서 중화학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현재 63.7%에 이르고 있어,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경제 전공

의미에서라면 우리 수출 상품 구조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 중화학 제품 수출 구조의 문제점

#### 개도국에서 이루어진 수출 증대

8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중화학 제품의 수출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선진국 시장에서의 수출 증대는 미미한 반면, 개도국 시장의 수출은 급신장하였음이 확인된다. 우리 수출 상품의 품질 경쟁 무대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EC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의 수출 증가율은 불과 3.8%에 불과하며, 중국, 동남아 및 기타 국가에서의 수출 증가율은 114.2%에 이르고 있다.

<표 2> 89년~92년의 중화학 제품 수출 증대 (%)

	총 증가 율	수출 비중 <sup>1)</sup>	지역별 증가율 (기여율) <sup>2)</sup>	
			선진국	개도국
중화학 전체	43.2	46.4 : 53.6	3.6 (5.4)	114.2 (94.6)
화학 공업	159.1	27.2 : 72.8	77.4 (19.3)	212.7 (80.7)
비금속광물	79.1	39.8 : 60.2	12.4 (10.0)	194.4 (90.0)
철강·금속	29.9	50.5 : 49.5	3.2 (6.8)	76.7 (93.2)
전자·전기	32.2	54.8 : 45.2	10.2 (20.8)	74.6 (79.2)
기계류 및 운반 기계	45.5	36.8 : 63.2	-19.4 (-28.3)	174.2 (128.3)

자료: 무역협회

주: 1) 수출 비중은 선진국:개도국의 비율임(92년 현재).

단, 선진국은 미국, 일본, EC를 일컬으며, 개도국은 나머지 지역임.

2) 지역 증가액/전체 증가액

이에 따라 89~92년의 4년간 수출 증대의 지역별 기여율도 5.4 대 94.6으로, 중화학 제품 수출 증대의 대부분이 개도국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또한 92년 현재 중화학 제품 수출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비중이 각각 46.4%와 53.6%를 차지하게 되어, 총액에서도 개도국 수출이 선진국 수출을 앞서게 된 것이다.

#### 수입 유발적 수출 구조 심화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입 유발 계수는 90년 현재 0.295로서 88년의 0.310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 제품 수출의 수입 유발 계수는 90년에 0.394를 기록함으로써,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85년의 0.360, 88년의 0.386보다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수출의 수입 유발 계수

	1985	1988	1990
제조업 평균	0.282	0.310	0.295
경공업	0.143	0.156	0.131
중화학 공업	0.360	0.386	0.394
화학 공업	1.243	1.295	1.241
철강·금속	0.372	0.485	0.436
일반기계	1.004	0.526	0.477
전기·전자 (전자부품)	0.336 (..)	0.322 (..)	0.283 (0.558)
자동차	0.060	0.077	0.05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주: 수출의 수입 유발 계수 = 업종별 수출의 수입 유발액 / 업종별 수출액

특히 89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화학 공업이나,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 부품, 그리고 철강·금속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수입 유발적인 수출 구조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화학 제품의 수입 유발 계수가 하락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수출이 중화학 공업 위주의 구조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진적 가공 조립 무역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주력 수출 상품

1992년도 현재 제조업 전체의 1인당 노동 장비율<sup>2)</sup>은 약 3,627만 원이며, 내수 기업의 노동 장비율 3,767만 원, 수출 기업의 노동 장비율은 3,292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위한 생산 방식이 아직도 내수를 위한 생산 방식보다도 노동 집약적임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수출 기업에는 섬유, 신발 등 전통적 노동 집약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 구조 변화에 따라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등장한 중화학 공업의 업종별 노동 집약도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4> 참조).

중화학 공업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자본 집약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철강과 같은 제품의 자본 집약도는 제조업 평균의 3 배를 훨씬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첫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 품목의 호조에 도 불구하고, 그 외의 전자 부품이나 가전 제품과 품목이 여전히 노동 집약적 생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제조업 평균 노동 장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 주요 업종별 수출률과 노동 장비율

업종명	수출비중 (%)	노동장비율 (千 원)	
		1990년	1992년
제조업 전체	100.0	24,696.1	36,272.5
중화학 공업	65.6	76,392.0	91,991.2
철강	7.3	105,433.2	124,095.3
전기·전자	29.4	19,470.4	29,098.9
자동차	3.9	29,436.5	33,270.7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1993.  
무역협회  
주: 수출 비중은 92년도 것임.

또한 자동차와 같이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노동 집약적 생산 방식에 머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적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극복 방안은 없는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화학 공업 제품 중심의 수출로 외형적으로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첫째, 선진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개도국 중심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로 기업경제 '93. 12.

2) 노동 장비율은 유형고정자산에서 건설가계정을 뺀 금액을 종업원 수로 나눈 값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동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노동 집약적이라 할 수 있다.

수입 유발적 수출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셋째로 주요 수출 상품은 중화학 공업 제품조차도 노동 집약적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개도국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 국가의 수입 수요가 아직 불안정한 데다 수입 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입 유발적 수출 구조나 노동 집약적 생산 방식은 결국 우리의 중화학 상품 구조가 고부가가치화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우리 수출은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든지,<sup>3)</sup>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출 증대가 물량 위주로 이루어진다<sup>4)</sup>는 등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의 수출 구조 변화는 내용없는 고도화일 따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수출 주체인 기업들의 과감한 기술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한 품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급화,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노동 집약적 생산으로는 더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경제 구조에서 설비 자동화 및 연구 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갖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의 수출 구조 조정이 사실상 경공업 제품의 대선진국 수출 감소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 환율, 금리 등의 가격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 조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장의태, 『우리나라 수출 상품 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2.
- 한국무역협회, KOTIS LINE.
- \_\_\_\_\_, 『수출 통계』, 각 호
-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1993
- \_\_\_\_\_, 『산업연관표』, 각 호
- \_\_\_\_\_, “1990년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의 산업 연관 효과,” 『조사통계월보』, 1993. 7.
- \_\_\_\_\_, “최근의 수출 구조 변화와 문제점,” 『조사통계월보』, 1993. 9.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구조 변화에 직면한 우리 수출,” 『기업경제』, 1993. 6.

3) HSK 수출 코드 2분류에 따른 10 대 수출 상품의 92년 수출 비중은 66.1%에 이르고 있어, 일본의 10.8%와 큰 대조를 보인다. 수출 상품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특정 상품의 수출 부진이 곧바로 전체 수출 증가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4) 89~92년동간의 수출 증가액에서 가격 요인과 물량 요인의 증대 기여율은 14.9 대 85.1을 기록하고 있어, 일본의 56.0 대 44.0과는 비교도 안될 뿐만 아니라, 86~88년동간의 43.3 대 56.7 보다는 가격 요인이 크게 줄어들었다.